



포항공대

李貞默 · 李信愛 교수부부

美 유학중 양가부모 소개로 現地서 결혼

포항공대의 기계공학과 이정묵교수와 생명공학과 이신애교수는 1960년대 초 미국에 유학중 수원에 살고 있던 양가 부모의 소개로 1년동안 편지로 사귀 후 현지서 결혼했다.

이들은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결혼 초 3년은 서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화목과 성실'을 가정의 제1목표로 삼았던 고향 양가 부모님들의 생활신조가 오늘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정묵교수와 이신애교수 부부는 '화목과 성실'을 가정을 이루는 좋은 덕목으로 여긴다. 이는 이들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배운 지혜이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사이가 좋으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성실한 생활을 해 오시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런 가정생활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대학의 강의와 여러 학회 등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는 두사람이지만 가정 생활은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다.

1년동안 편지로 사랑 나눠

이들 부부는 수원에 함께 살고 계시던 양가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나 결혼

을 했다. 당시 이정묵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서, 이신애교수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1년동안 편지로 사귀후 65년 6월에 이신애교수가 박사학위를 받던 전날 결혼을 했다. 결혼까지 서로 만나본

시간은 다 합쳐야 1백시간도 안 되었고, 학생 때이니 신혼여행이란 꿈도 꿀 수 없어 워싱턴에서 버클리로 오는 비행기 여행이 두사람의 신혼여행이 된 셈이라는 것이 이정목교수의 회상이다. 이신애교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귄 시간이 별로 없이 결혼을 했고 또 둘 다 자존심이 강한 편이어서 결혼 후 3년 정도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털어 놓는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말다툼도 꽤 했지만 항상 비슷한 문제로 마치 녹음기 틀어 놓은 것같이 그만 두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 이는 바로 사이가 좋고 가정 화목과 성실한 생활을 하였던 양가 부모님의 생활에서 배운 지혜였다는 설명이다.

유학중 고생경험 생활에 도움

지금도 연구나 학교 일에 바빠서 가사 일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일 같은 것은 유학중의 고생경험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들 부부는 분야는 다르지만 다 같은 과학도로서 사물의 합리적인 판단과 합의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고 말한다. 이정목교수는 이신애교수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 가전제품의 간단한 조작이나 수리를 잘 하는 편이고, 숫자계산도 빨리 하는 편이어서 여러모로 이교수의 시름을 덜어주곤 한다고 다행스러워한다. 이신애교수는 이정목교수가 아이들이 고교를 마칠 때까지 수학이나 과학을 직접 지도하는 등 자상한 남편 노릇을 했다고 말한다. 이제 슬하의 두딸이 각기 가정을 이루어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 뿌듯하다는 이들 부부이다.

이들 부부는 성격이 아주 편이하다.



▲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관광지에서의 이정목·이신애부부의 다정한 모습

이정목교수는 성격상 미리미리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보다는 일의 마감일이 닥쳐오면 전력을 경주해 일을 마치는 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평한다. 반면에 이신애교수는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이고 오히려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서로 어떻게 저렇게 불안하게 사나 싶기도 했지만 오히려 서로 부족한 점을 매꿔 주기도 한다는 것.

퇴직하면 사회봉사활동 펴 터

두사람 모두 어떤 일이건 적당한 선에서 끝마치는건 싫어하는 편이라서 남들 눈에는 좀 까다롭게 보일 것이라는 자평을 하기도 한다. 이정목교수는 이신애교수가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고 여생을 즐기는 쪽으로 마음을 훈련시켜 가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 이신애교수는 이정목교수가 학교 일과 연구에 몰두하여 집안 일에 소홀하다고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이교수가 건강하게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

이정목교수는 앞으로 학문적으로 이제까지 추구했던 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한편,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구상과 연구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신애교수는 대학의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퇴직하면 사회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희망한다. 이들 부부는 한국의 발전이 피땀나는 노력의 과정없이 성취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과학기술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반도 안 갖추고 투기성이나 요행성만 바라고 성과를 얻고자 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것을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이정목교수는 58년 서울공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 해군 다비드 테일러 함정연구소와 한국선박연구소, 미 해군연구청 등에서 연구생활중 86년 귀국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교수는 한국이론 및 응용역학회 초대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 관련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96년 대한조선학회 학술상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이신애교수는 59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대학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햄리서치사 등에서 연구생활중 87년 귀국해 현재 포항공대 생명공학과에 재직중이다.

슬하에 진영(32세)과 수영(31세) 2녀를 두고 있다. ㉟

송해영<본지 객원기자>